

셋다 월급도 월초(月初)면 백호가 인천별장의 잇는 애자의게 가정교사로 갈적
마다 그집에갓다주었슴으로 신애의이모는 한번도오지도아니하얏스니 신애의
게는 제일만가웁고 마음이노히였섯다 어느날 신애와로파가 방에서이야기하
고잇고 주인은 식골을가고 집이비엿슬때이다 신애는 아모말이업시 안젧다가
로파를치여다보더니

「복성어머니 주인제서는 오날도라오십닛가」
하고무러보니 로파는빙그레우스면서

「응 오날은오시겟지 너는 편주인을기다리는구나」
이말을듯던신애는 얼골을붉히면서

「아니요 복습할것이잇서서 그랬서요」

「참너는 복도만타 월급은얼마나되는지 모르겟스나 일이라고는 방이나쓰는
것뿐이고 그런데다가 녀학교에다니는것처럼 공부짜지하니 만일그리다가
혹시세상일은몰나서 주인의안악이나되엿스면 여복조겟니...」
「그렇치만 나갓흔사람을 주인제서 안해로 어들수는업겟지요 신분이다르닛
잔」

「애 그런소리마라라 암만 신분이다를지라도 그런일은 그렇지안흔것이야
너는얼골도 잘생기고 나희와태도가 아조련생연분이다」

「이편만잘맛났스면 무얼하나요 주인제서실혀하신다면」

「글세다 내가만일 이집에아니잇다며는 중신이라도하겟지마는 가른하인으

로는 참아말을못하겠구나」

이말이쫓나자 배달부와 두서너장의편지와 신문을던지고갓다 신애는니러나서
가지고와서 한장만 남겨노코는 모다 주인의책상우에 갓다두엇다 그리하야
신애는 편지한장을들고 로파앞으로와서안더니

「이것은 복성어머니한테로오는 편지입니다」

하고 로파를주니 그로파는 편지를바다가지고 압뒤로보기만하다가 다시신애
를주며

「애! 신애야 네가좀보아다오 내가볼줄아니」

하니 신애는 봉투를쫓고 읽어보니 다른말이아니다 죽하를장가드릴터이니 속
히도라오라는 편지이엿다

「아니그러면 동생의집에서 온편지구나」

「그러면 식골로가시겟습닛가」

「글세 나는이집을떠나고십지는 안치만 그랬다고안가본다면 동생이 섭々히
알겟지 엿더케하나」

그리자 문압해서 인력거가대이더니 주인백호가 식골서 여러날만에 도라오게
되엿다 그리하야 신애와로파는 주인의게 인사를하고 가방을바드며 안으로드
러갓다 백호는 안방으로드러가면서 가방든신애의게 인력거사를 주라고하고
복성어머니와갓치 안방으로 드러오라고하얏다

신애는 밧그로나와 인력거를보내고 복성어머니와가치 주인압호로와서안지

니 백호는 우스면서 가방을 열고 선물을 꺼내여 노흐며

「자! 이것은 복성어멈한테」

하며 옷감을 주더니 또 물건을 집어

「이것은 또 신애가 갖고」

하며 신애를 주니 그것은 비단 옷감이요 지금 유행되는 옷감이였다 주인은 다시 신애를 보더니

「이것이 신애의게는 너무 싸것이나마 보기 좋게 사왔소 그대신 복성어멈과 싸호지 안도록 이것을 더 주지요」

하며 화장품이 가득 담여 있는 갑을 주었다 신애는 반가워하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후 돌이속으로 반가워하면서 있다가 복성어머니가 주인을 보더니

「그런데 서방님 저는 큰일났습니다」

하며 괴로운듯이 편지를 내여 주인의게 보이며 있었다 주인은 편지를 보고 「그런가 아! 그것 참 안되었군그래 그러치만 족하의 장가드는데 그대 로 잇슬 수 있나 하여 간 나려가서 일을 다 보고 오게 나는 언제든지 어멈을 기다리고 잇 슬터이닛사.....응」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생을 서방님 곁에 잇고자 하얏습니다」

「넌 말게 나도 인정도 잇고 어멈을 미드닛사 이곳 은 조금도 녀려 말게 또 신애 혼자라도 녀히 일을 보게지 음식 갖 혼 것도 다 할 줄 알겠지」

「아이고 참 서방님도 반찬은 저보다도 잘 만든답니다」

「응그러면 되었군 녀려 할것업네」

그리하여 그잇는날 복성어멈은 주인의게 만흔 선물을 바다가지고 가게 되었고 백호와 신애의 두사람만 잇게 되었다

복성어멈과 갓치잇슬때에는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할일도 잘안되었스나 신애 혼자만 잇게된후로는 무슨일이던지 혼자 열심히 하게되어 오히려 전보다 속하얏서 다 저녁이 되나고 설거지를 다한후 신애는 깨끗한 옷을 가려입고 백호압해 책을 가지고와서 공부를 하얏었다

어느날밤 신애는 놀하는대로 선물로 어든분으로 화장을하고 백호의 곁으로와 다 백호는 신애를 보며

「복습하러왔소」

하니 신애는

「네」

「오늘은 하로 놀기로 합시다」

「네」

신애는 대답을하고 도라가라할때에 백호는 손짓을하며

「잠깐」

「무슨일이잇습닛가」

「응 다른일이 아니라 무엇할일업지」

「그러면 여과서 나하고 이야기라도하는것이 어떻요」
 「네」
 「신애는 몸을압호로 숙이고안게되었다」
 「인제는 신애혼자있게되었스니 매우심々하겠지만은 얼마간은 괴로움더래도 참어주어야지 그런대신애는 남자있는곳에서 언제든지 심부름만하는것은싫겠지.....응」
 「아니야요 저는그렇치않습니다」
 「응그랬소 그러나신애」
 「평생 내곁헤잇스면 어떻겠소」
 「네?」
 「신애는 시름없이 얼굴을드렸다」
 「서로 중대한일이입니다 잘드려주십시오」
 「진정한말을한다면 내가처음 당신이인천서 석장사하고잇슬때에 별장집애자의게 당신의사정을듯고 나의마음은 대단히놀났섯소 그러나그것은다만동정에서 나온것이겠지요」
 「백호는 말을듣고있다가 다시말을내이며」

그결과로 내가당신을 엿더케하얏소 참된녀자를만들기위하여 녀자의할만한 일은 대강가르켜주지안헛소 그것은 착한일을하는사람의하는것이오 절대로 다른야심이있다든지 신애를엿더케하고자하는생각이업섯슴을맹서하겠소 그것은당신이 엿래스것 본바와갓치 나의언어동작으로알겠지요」
 「신애는 이런말을듯더니 더욱고개를숙으렸다」
 「나는당신을훌륭한녀자를만드려서 상당한남편을구하여 행복한일생을보내도록하고자함에 불과한것이오 다만동정심이 나를그럭케하도록하얏지요 그런데 요사 하나는원일인지 학교를왕래하면서 심지어 교실에서까지도 당신을생각하게되었섯는데 그러나당신은 내가그러케사랑하는줄은몰랐겠지요」
 「.....」
 「그러데나의친구로부터 당신과사는것이조라는말을드렸소 그사람은 당신도 알고잇겠지요 두서너번이나 차저왔든박(朴)이라는 중학시대에학우로 지금은 철도국(鐵道局)에다니고잇지요」
 「박이라는사람은 신애도넋지안헛섯다 얼굴이검고 눈이큰 수족이완장한사람이였다 어느날신애가그의압호로 차(茶)를가지고갓슬때에 작고치여다보앗슴으로복성이멈의게 『보기실흔사람이다』라고싸지한일도잇섯스니 신애의게는 실흔사람이였섯다」
 「그리하야나는 그박씨의권함을바더 하여간 당신의의향을듯고심헛소 그런데만일 친구의물건이되고본다면 엿전지 나의사랑하는사람을 남의게빼앗기

『고심소』
 신애는 고개를숙이고있었다 백호는 그의압호로 점々갓가히오며 더운입김을내
 여뿔으며 입에잇는침이마를듯이
 『응실소? 중대한일이니 확실히말씀하세요 연애(戀愛)는 절대로자유(自
 由)임니다 내집에와서잇스닛사 당신이나를사랑한다든지 만일아니사랑하면
 내여보내지안홀까하는 그런념려는조곰도마십시요 당신이자유롭게마음먹은
 대로 말씀하십시오 지금내가이야기한문데와 용인대피용인(傭人對被傭人)
 파는 별문데이니사.....네! 신애씨!』
 하니 신애는 방바닥을 디려다보면서
 『네!』
 하고대답을하였다
 『신애씨그러면 나는엇더케한다는말씀입닛사』
 『저! 저는 식집갈몸이못됩니다!』
 『그러면 당신은지금까지 여러사람과관계한일이 잇는더럽힌몸이란말이오닛
 가?』
 『아! 아니야요』
 『그렇치만안라면 조곰도주저할것이업지안습닛사』
 『그러나 저는그런것보다도.....』
 『아니그러면 신애씨는 그보다더한죄를 지었다는말삼이오?』

는것갓하야 당신은그사람이실흔지 조흔지엇던지를 모르겟스나 나는당신의
 제그말을무려볼용과가 암만애써도나오지안엇소 그것은 만일당신이 그의게
 로가고심다고할가하야 그것을념려하였기때문에그랬소 나는그것을겁내엇섯
 소 그러고나는 다시생각해보앗섯소』
 신애는 한손을잡고 한마디말이라도 더듯고심혀서허리는숙이고있다 백호는
 다시
 『나는 다시생각해볼것도업시 당신을사랑합니다』
 하며 신애를치여다보니 그의얼굴은붉어졌다
 『나는 나의자신도아지못하는사이에 당신을사랑하게되엿습니다 동정이사랑
 이된것을 처음으로알게되엿습니다 그래서나는오날 주안게신당신의 이모님
 을죄웁고왔습니다』
 이모가 무엇이라고하얏는지 신애에게는 궁금하였섯다
 『당신의이모님아! 아니어머니 나는이모인줄알엇더니 당신의어머님이요?』
 백호는 신애의게 이와갓치무렷스나 신애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수업섯다
 『그사람의말은 자기가이모가아니라 친어머니라고합디다 하여간에 그어른
 을죄웁고 진정할말로 모다고백을하고 당신을달라고하니사 그의대답은당자
 즉신애씨의게 맏간다고합디다』
 신애는 그제야 안심을한듯이 한숨을되게쉬었다
 『그래서 나는지금 당신의마음을 못는것이외다 신애씨 나는당신의마음을못

신애는 아모대답이 없었다 백호는 한참무엇을생각하다기

「남자와관계가없다면 아해가잇슬리도없겠지요 그러치안으면 법률상(法律上)의죄를지엿소 설마신애씨는 그런일은업겠지 나는당신을밋습니다 지금의신애는 깨끗한마음을가진사람이닛까 이왕을말할것은 업겠지요 날노보건 덴령육(靈肉)이다아 깨끗한처녀라고밋고잇습니다 하여튼 나를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이두말의한대답만들으면 그만이야 님닛까 신애씨!」

백호는 신애의 두손을잡고

「만일신애씨가 입으로말삼하기어렵거든 이러케하야 주십시오 나를사랑하지 안거든 왼손을빼이시고 만일사랑하시거든 오른손을벗드십시오」

하니 신애는 고개를숙이고 백호의오른손을 힘껏쥐었다 백호는 기쁜듯이우슴을찌우며

「아! 그러면 당신도나를사랑하고잇섯구려」

하더니 신애를뜨거운품에 재안했다 신애는백호의하는대로 몸을맡기면서

「나는처음부터 당신을 당신을.....」

연애는 자유한것으로밋고잇는백호는 형식적의결혼식이나 호적상(戶籍上)의수속같은것은 자못생각지도안했었다 다만두사람은 극도의사랑만을 교환하야 하며 그날을 보내게되였다 로파복성이머니는 고향에간후 아직것도라오지아니하야 신애는 한집의살림을마타가지고잇게되였다

그러는동안에 그해도다 지나가고 이듬해봄이왔다 어느날백호는 아직학교에서

도라오지안코 신애만 집에혼자남어잇섯을때에 누구인지 밧게서찾는사람의목소리가 들니여밧그로나와보니 그사람은 복성이머니이였다 그리하야 그들은다 갓치반가운인사를하고 안으로드러와서 복성이머니가 신애를보며

「서방님은?」

어대를갔느냐무르니 신애는 조금도서슴지안코

「사랑에서는 인천가섯답니다 나 혼자만잇스닛까 어려워마시고 편히 다리를쉬이세요」

복성이머니는 서방님이라고부르든신애가 별안간 남편이라고하는말을듯고 이상히녀이며 자기의속마음으로 「원일인가?」 하며 신애의모양을보니 이상한것은그것뿐이아니였다 작년까지도신애가 셋々한무명옷을입었섯는데 지금은보통때에는입지도안런 비단옷을입었고 머리까지트러언졌스며 주인이쓰는 장롱이나 그릇같은것을 자기의마음대로하는것이 도모지 하인으로는볼수가업스며더군다나 놀난것은 신애의호흡이 되여지고 어대인지과리한것을보니 젊은때에 경험이잇던복성이머니는 분명히아이가진사람으로 보았다

「아! 복성이머니 왜남의얼굴만작고보세요 어서과자라도 잡수세요」

「신애야 아이참 요런정신도.....아씨!」

「하하하하 아나씨가누구야요」

「히! 그래도 나를속이지말우 그전보든새아씨는아닌대」

신자(信字)를 한자씩 따서 호신(浩信)이라고 지었다. 신호는 날이 갈수록 차차 커지며 모자가 다 근강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애는 벌써 불을 보고 웃기도 하고 자과 주먹을 썰기도 하였다. 어느 날 신애는 어린애를 안고 와서 남편이 뒤뜰에서 화초분을 만지고 있을 때에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애가 말서 당신을 바라고 아는 듯이 웃는구료」

백호는 뒤를 도라보니

「어디」

하며 두손에 무는 흙을 툇꺅 털면서 그의 압호로 갖가히 오더니

「오! 웃는데 우서 어디 아비를 아러보니.....응」

신애는 웃는 애를 치어다 보며

「아가 안다고 그래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대답해라 하하하」

「아직 말은 못할 설 어머니는 억지의 말만 하지 그러치응 자아 아버지의 게로 오게 엿차!」

「아! 아니여보세요 그런 흙무든 손을 가지고」

「참 그러치 그러면 손을 씻고 안어보지」

백호는 허둥지둥하며 손을 매끗하게 씻고 와서

「이 자식 썩어미를 달랠 데」

「아니예요 당신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치만 저코 나날과 입모습은 당신과 아조 같흔데」

「아이고 참 복성 어머니도 그동안 더 늙으셔서 망녕이나 셋군 저는 여전히 전과 같은 하인이랍니다」

「거짓말 마려요 주인서방님의 아씨가 되었지요 나는 벌써 소문을 듣고 왔는데」

신애는 복성 어머니의 넘겨잡는 말인지도 모르고 얼골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이더니 부끄러워하면서

「아! 그러세요 나는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이 있섰답니다」

「온저것 봐! 하하하하 원채 아씨와 주인과는 아주 마친내외인데 나는 아씨가 처음 이곳에 올 때부터 알고 있섯다우」

「아니 할멈이 작년이나 보고 하인이 아니면 중신이라 도 하겟다고 했섯지요」

「네 그랬섯지요 이제 생각하닛까 벌써 그때부터 부부 인연이 있섯나 보아요..... 아씨」

「아마 그랬섯는지도 모르지」

「아씨 주인이 참 조흔 양반이지요 착하고 순하고」

「응 그야 그러치요 그러나 나의 남편으로는 너무나 과해서.....」

그때에 백호는 집으로 도라왔다. 신애는 밤그로나와 남편을 마지며

「저! 할멈이 왔서요」

하니 백호는 반가워하며 서로 지난이야기를 하고 몇철을 가치자 미있게 묵고있다. 다가 복성 어머니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도라갔다. 그러하는 동안에 가을은 도라와서 신애는 옥갓흔 남자를 낳았다. 그 어린애의 일흠은 백호의 호자(浩字)와 신애의

「네 그러면 신애는당신의딸이아닐까」
 그의이모는 엽헤잇는신애를 께눈으로보면서
 「아! 참 그러치 그만청신이아득해서..... 그저늬으면죽어야해! 하하하하
 저그런데여보게 급한일이 잇서서왔는데」
 「네?」
 「저! 급히신애를 다려가라고왔소」
 「무어시요」
 백호와신애는 눈이둥그래지며 가슴이두근거리었다 백호는안고잇든아희를신
 애의게주면서 얼골빛이변하야
 「그것이 무슨말삼압닛가」
 하니 이모는천연하게안저서

「아니그렇게 놀났것이무엇잇나 신애는내가소용이되닛까 다려가라는데.....」
 응 그러치안소」

「네무어요 장모님은 신애를지금까지 부리는하인으로 아섯습닛까」
 「그러면 신애는 자네집이잇는하인이아닌가」

「그런우슨말슴마십시요 자식싸지잇는내외가아닐까」

「여보게 그런당치도안흔소리를말게 언제내가 신애를주었나」

「아니 작년가을에말슴하시지안엇습닛까」

「그런말은숨에도해본적이업네」

「그대신에 눈스가는 당신눈과갓지안허요」
 「글세그렇타면 그러키도한데 우리두사람이 만든것이닛까 무어싸흔것업소
허허!」

이와갓흔말을하며 두내외는자미잇게 우슬때에 대문이열니며 누구인지 찾는
 소리가났다 신애가급히나가보고 드러오더니

「여보세요 인천사는 이모님이오섯세요」

하며 말소리도죽고 얼골빛도 불안한듯이보이였다 백호는 쾌활한목소리로

「응어서 드러오시래지」

하는동안에 뒤스뜰로 어정 / 드러오는사람은 신애의이모이였다

「사위 잘잇섯소」

「네 장모님이십닛가 이리로올나오십시요」

「애가아들이오」

「네 참잘생겼지요」

「얼마나 절집껏소」

「네 무엇보다도제일절집습니다 내가학교에서 도라올때에는 이것이 엿지보
 고집흔지 발이쌍에닷지를안는답니다」

「암그렇겠지 누구나다야 자식을귀엽다고하닛까」

「네? 아니그러면 장모님은 아희를길너보지못하섯습닛까?」

「나는 자식이라고는 나어본적이업소」

「그것은너무나 무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즉접인 천덕에 내려가서 이러
이러하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지 내가 알 것이 무엇이오 하시지
안했습니까.....네?」

「응! 그 말은했지 또 그것은 당연한일이 아닌가 부부의 인연이라는것은 당사
의마음이 지남이엄만무엇이라고하더라도 본인의게마음이 업스면 그만이아
닌가 그러니까 나도그런말을하얏지 결코신애를주겠다는말은 되살만치도업
섯는데.....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그런말씀도아니하셨다면 왜오날까지잠々하 잇섯습니까」

「무어 그러면 내가오날까지 아모소리도안한것이 잘못이란말일세그러」

「아니 자식까지나도록 그냥두었다가 인제와서그런말을아니하였다하시니 그
것은너무나 참혹한말삼아아닙니까」

「은어느쪽이 참혹한지 모르겠네 이신애로말하면 나의게는 밥술과갓흔데 이
런자식을그냥줄수는업소 그런쓸데업는말은하지도말게」

「장모님 나는조곰이라도 그저잇지는안했습니다 작년말삼한후부터 신애
는심부름하는것과갓치 매삭십원식의월급을 더구나 다달이초생이면 보내되
리지안엇습니까」

이 말을듯던 신애는 의외일이엿다

「아! 저런 매삭십원식을.....」

이와갓치 신애는 속마음으로 놀내이며 남편을 치여다 볼 용기가업서졌다 백호

는 다시말을내여

「이런말은 혹시신애가알면 엇지할까하고 지금까지입밖으로내여본일이업섯
스나 안해의월급을 매삭천정으로 보내줄 남편이어대잇습니까 그것도다리고
잇는것갓흐면 모르지마는 나의게는 신애가 훌륭한안해로 알고잇습니다」
하니 그의이모는 별안간 안젓다가 벌떡이러스더니 얼골빛이무서웁게 변해지
더니

「아! 니 잠々코듯고잇스니까 젊은친구가 뺨잔소리가심한대 달々히 십원쯤
보내고 한배원이나 천원이나 보낸것갓치아는구면 그까진십원이다무어야 육
십이나거던가저가게 온! 사내답지도못하게」

「글세나는 무슨월급을말한것이아닙니다」

「다들기실혀 좌우간나는 오날신애를다리고가겟네 오날까지한달에십원이라
면너무나 싸갑일세」

「그러면 어디케한다는 말삼습니까」

「말이다무슨말이야 다리고간다는데」

「아니여보시오 달々이내는것이 적다는말삼업니까」

「아니야 다그만두게 내형편이지금 큰돈이잇서야일이 피우겟스니까.....허
허々々」

백호는 다시놀내었다

「아니 그러면 신애를다리고가서서 돈을만들라하십니까 돈돈을얼마나소용되

심닛까」

「하하하하……왜! 자네도 돈이 있나 좀섭々한소리 갖지마는 학교선생이 돈 이어대잇서」

「아니얼마나 소용되심닛까 좌우잔금액을말삼하십시오 백원임닛가? 이백원 임닛까?」

「홍백원? 그싸진백원이다무어야 천원일세천원!」

「천원?」

「놀나지말게……하하하하」

「아니 그래신애를 천원짜리물건을만든다는말삼이지요」

「그때 왜그레나? 나사는인천서 돈만흔중국사람의게팔터인데」

「장모님 어린애싸지잇는게집을 중국사람의게판다니 그것이다무슨말삼임닛 까」

「홍 아히가잇는것을 누가아나 나할일만하면그만이지」

「그러면 당신은 어데싸지던지 물건을만들고자하심닛까」

「그런치 쓸폐업는걱정말게 내자식은아니지마는 호적에는 두렸하게 나의설

백호는 결심한듯이

「그러면 천원을내가내지요」

「무어야」

이번에는 이모가놀내었다

「여보천원을더릴터이니 이후부터는 이러니저러니하고 다려가지는못합니다

……네」

「그야 천원만바드면 호적이고 무엇이고 다하야주지잘생각했네 그러는것이

리익이지」

「네죽습니다 몇칠동안에 천원을만드러 주지요」

「아니 지금이아니고 또몇칠이야」

「지금은 수중에돈이업스니까」

「그런가 그러면 자네수중에 돈이될때까지 물건을먼저가져가겟네 이런것은

현금이아니고는아니되니까」

「아니 그것은너무나심하십니다 길지는안흐니 몇칠만 참어주십시오」

이모는 신애를보면서

「자아 신애야 어서가자어서이러나」

하니 신애는 그만돌내며 백호의게대여들면서

「실혀요 저는못가겟습니다」

하며 울고잇다

「무어실혀 너는나의은혜를 모르는구나 너의아버지의한일을 생각해보아」

신애는 몸서리를치며

「아! 이모님 가겟습니다 그러나 이어란것을두고……」

부르며 가게되었다
그런일이잇는지 심여일이나지난후 백호의집을차저와서 주인을부르는녀자가
잇스니 그녀자는 인천별장에잇는애자이였다 안에서 누구심닛가하고 백호
의목소리가나며 우는애를안아달라며 대문앞으로나왔다 애자는반가워하며
『아!선생님!』
『야!애자요 어서드러오세요』
백호는 어린것을안코 압홀스며 애자는 그의뒤를따라서 방으로드러왔다

『응 나 는 녀려 마 시 요 당 신 은 이 어 린 것 을 니 저 서 는 안 되 오』
신애는 눈물을흘리며
『그 어 린 것 은 내 가 다 리 고 가 껴 습 니 다』
하니 그의이모는목소리를높히며
『안 된다』
『그러나 이모님것이업스면 저어린것은 죽지안습닛사』
『애 그런거정마라 돈만잇스면 유모(乳母)도잇고 우유(牛乳)까지도파는세
상이야..... 흥 범에게물녀갈지라도정신을차려라』
하며 신애를끌고나가니 백호는 울고잇는어린것을 달내면서 그들의뒤를따러
나갔다 신애는어린것의어미찾는우름소리에 참아 발을떼이지 못하고 다시도라
스라하얏스나 그의이모가압홀막음으로 할일업시 눈물섞인목소리로
『호신아!』

『아!그썸짓어린것은 주인에게주어버리려무나 그것만 붓잡고잇스면무엇하
니어서주어 어서.....응』
『이모님..... 제발! 저를저를.....』
『안돼!그어린것을 자!이리다오 나의게로』
이모는 잠든어린애를 빼서서 백호에게주며
『자!옛네 어린것은 으레히 애아비가 차지하는것이야 왜옛날부터그렇치안
혼가 자아』
하며 어린애를백호에게 안겨주고 다시울고잇는신애를끌며
『자!어서너러나거라 차시간이되였다.....응』
『안됩니다 이모님.....』
『안돼 왜이러니 너는너의아버지의살인한일을 니저버렸나보구나』
신애는 썰니는이불로로
『앗 이모님..... 그 말씀만은』
하며 할일업시 니러나며 남편백호의손을 잡고
『그러면 여보세요.....』
백호도 썰니는목소리로
『응 신애.....』
하며 어린것을안흔채 니러섰다
『그러면 이삼일안에 썸돈을만드러가지고 오서서나를다려가세요.....네』

「어린것때문에 아모것도대접을못하니 용서하시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에서 그간한번도오시지 안으셔서 혹시병환이나 나
 신가하고문안차로왔습시다」
 「네고맙소 병이아니라 이어린것때문에 손이비지안힘으로 요사이는학교 사
 지도 결근을하고잇소 그런데택에도 다안령하시요」
 「네 그런데 그아해는누구임닛까」
 「내아들이라오」
 「온선생님도참 거짓말.....」
 「아니오 정말입니다 나와신애사이에된 아해인데」
 「저는 아모리생각하야도 선생님말삼을밋지못하겠습니다」
 「거짓말이무어요 작년시월에 신애와부부관계를맺고잇섯는데요」
 「네? 저는조곰도몰랐습니다 참선생님도작년일이라면 그후몇백번이나 선
 생님을뵈었는데 저의게는 그런말삼도아니하섯서요」
 「당신뿐만아니라 식골계신어머님의게도한철팔일전에야 알녀드렸는데.....
 그것도할수업시」
 「아니 아들나흐신것도요」
 「그럼」
 「그러면 신애 아니참 선생님부인은?」
 「네안해는 이자식을남겨두고 자괴집으로 갔다오」

「저! 인천주안에요」
 「네」
 「저런 저는아조..... 그런데언제나 천정에서오시나요」
 「네아조안온답니다」
 「무얼요」
 「아니요 그외이모라는녀자가 무리로 설고갓다오」
 「애자나는 그런무정하고도참혹한녀자라는것은이번에처음으로알엇소이다」
 하며 모든사정을 자세히이야기하야 들니엿다 애자도 가련히녀기며
 「세상에는참사람의탈만쓴 냉혈한동물(冷血動物)도다잇습니다 그러 그런말
 슴을 하시면 무엇할닛까 그런대 부인을구하실대책이나 생각하섯습닛까」
 「네여러가지로생각하얏스나 이세상은돈이라하는것만을 알게되엿습니다 황
 금만능주의에는 굴복하지아니할수업는것을 아릿습니다 인제는교원도그만
 두고 돈을버려야하겠습니다 돈이업는것은 사람의목이업는것과 갓다는말이
 참진리(眞理)이외다 아모리생각하야도 턴직(天職)으로는 남을구할수 업습
 니다 남이아니라 데일자괴의처이자식의어미도구할수가업습니다」
 백호는 어린것을안어주면서 털광되어도로 말을한다
 「나는 애자씨!」
 백호는말을니여
 「돈은 무엇하는것임닛가 만코적고간에 천원의돈입니다 그러 나는어머님을

꼭 미뎠섯지요 왜 그런고 하니 천원의 돈과 한녀자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지요 그어느것이 경중할는지 모르겠으나 가튼 인류의 한사람이 천원의 돈으로 구할수 있다면 나는 깃브게 내겠습니 다 머리를숙이고 부림을 받으시오 하 물며 어머니의게는 떠나리가 되는 신애의 생명입니다 그럼으로 나의 말한마디로 천원의 돈을 내여 줄라 생각하고 갚섯더니 인사도 것인사를 하고 천원거냥은 백 원도 내여 주지 못하겠다고 합디다 그러」

『온저편』

백호는 흥분되어 도로 어 린것을 가르키며

『이 어 린것을 다 리고 갚섯지요 이 아희와 이 아희의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하얏섯 지요 아 마 남으로 알고 그 린는 지도 모르 겿습니 다 그러 고 보니 어머니의 대답은 이 린습니 다 남을 구하기 위하야 천원을 내일 만 돈은 아 직 업다고 합니 다 그 집 은 나의 집이고 나는 그 집 주인의 큰 아 들이 엿스 나 장 사 하 기 도 실 코 하 야 나 는 도 라 가 신 아 버 니 의 생 존 시 의 행 사 에 그 리 감 복 처 아 니 하 얏 습 으 로 그 곳 에 도 별 로 가 지 아 니 하 얏섯 스 나 이 번 일 로 오 래 간 만 에 가 서 궤 장 하 게 썬 들 고 왔 습 니 다 물 론 나 도 모 욱 을 당 했 습 니 다 어 느 곳 에 개 뼈 (犬骨) 인 줄 도 모 르 는 제 집 더 구 나 하 인 이 든 제 집 을 안 해 로 삼 는 다 는 것 은 그 래 가 지 고 도 교 사 노릇 을 한 다 고 하 느 니 이 러 니 저 러 니 이 후 부 터 는 대 문 압 헤 거 림 자 도 빗 치 지 말 나 느 니 여 러 가 지 로 모 욱 을 받 고 왔 습 니 다 그러 나 나 는 아 모 러 치 도 안 습 니 다 나 는 그 와 썬 사 람 이 외 다 심 부 를 한 것 이 무 엇 이 남 불 닳 가 왜 천 함 닳까 다 갚 혼 사 람 이 지 마 는 자 괴 의 경 우

에 따 라 서 는 거 지 노릇 도 하 겿 지 요 거 지 노릇 한 사 람 은 일 평 생 남 의 안 해 될 자 격 이 업 단 말 입 닷까 참 또 가 난 한 사 람 은 부 자 가 될 수 업 다 는 문 데 입 니 까 어 리 석 은 말 도 너 무 하 닳까 그 래 서 나 는 말 못 할 수 전 로 (守錢奴) 라 고 썬 드 린 습 니 다 그 들 의 눈 에 는 돈 썬 이 보 이 고 령 광 (靈光) 도 보 이 지 안 코 자 광 (慈光) 도 모 르 니 다」

하 는 그의 눈 은 불 닳 가 치 불 어 썬 다
『그러치만 이 세상에 생 존 하 는 이 상 빵 만 으 로 는 살 수 업 는 것 과 가 치 령 썬 으 로 는 살 수 업 습 니 다』

『나는 황금의 굴복 하지 아니 하면 안 될 때 가 왔 습 니 다 그러 나 지 금 그 황 금 에 영 킨 처 의 억 지 의 죽 음..... 령 과 육 (肉) 이 다 갓 치 죽 을 안 해 를 방 관 (傍觀) 하 고 있 슬 썬 임 니 다』

하 며 백 호 는 눈 물 을 줄 라 흘 니 고 있 다 모 든 말 을 열 중 되 여 듯 고 있 던 애 자 도 눈 에 손 수 건 을 대 이 고 있 셸 다

※

※

※

이 모 의 손 으 로 넘 어 잔 신 애 는 드 디 여 남 의 손 에 팔 니 게 되 었 다

『자! 그러면 천원!』

하 는 통 번 (通辯) 비 슷 한 남 자 가 백 원 지 폐 열 장 을 신 애 의 이 모 의 게 주 었 다 신 애 의 이 모 는 반 가 운 듯 이 돈 을 받 고 나 서 중 서 에 도 장 을 찍 었 다

『그러면 지금 곳다 리고 가 겿 습 니 다』

이 말 을 듯 던 신 애 의 이 모 는 안 에 드 러 가 서 신 애 를 썬 고 나 와 서 통 번 의 뒤 에 있 는 껌

은웃음은 중국인의 신사압호로 오더니

『신애야 너는 오날부터 이량반에게로 식집을가거라……응 하하하 저그리고 남편의 눈빛에나 지안도록 사랑을바더라』

신애는 심여일동한이나 감금(監禁)을당하고잇서서 이제는악이 치바쳤섯다

『저는실습니다 죽어도못가겠습니다 서울로 다시보내주시지안호시면나는죽고야말겠습니다』

『네가암만죽고심혀도 저 남편되는량반이 사랑하시닛사 죽지를못하게하신단다 그것치요영감님』

중국신사는 싱글／＼하면서

『우리 이사람아주종거시 조흔웃도 아조만이／＼사주고 또구경만이해도호당신마음대로해도호 위대호잔나』

『자—저것봐라 비달웃도사입히고 구경시켜주겠다 안그러시니 참너는복도만타 그런량반을실라고하면 네몸에런벌을당할것이야』

『이모님 제발 한이삼일만 더참어주세요 이삼일안에 남편에게서도 돈이안이된다면 저는저는죽어……아니 단렴하고 저량반을싸라겠습니다 날자가그다지 길지도안습니다 그러니 이틀이나 사흘만 내이모님!』

『쓸데없다 래일모래하고 기다려도소용없다 네가서울서온지 벌써몇칠이나이삼일안으로 돈이된다더니 오늘까지벌써몇칠이야 너는아직도 그사람이단렴한줄모르는구나 그러치안호면 아모리가난하더라도 남자가아니냐』 그래

천원하나를엿더케변통못하겠나 공연히이러니저러니말고 이량반을싸러가거라 그러케하는것이 너의장래에도 리로올터이니사』

『그렇치만 그것치만 백호씨가……』

『애별소리마려라 어린것은 이제로부터도 몇치든지날수있다 그것케어린것이낫코심거든 그저날마다 그것치요영감님……호々々々』

『우리 아들이아조종거시』

중국인신사는 신애의것호로와서

『쏘하이쓰『아들』 위대 휘잔나 그것보다당신 퉁호—』

하며 시점은얼굴에 드러운우숨을빼우더니 검푸른입술에 누런니를내여보이며 신애의입을 마치고한다 신애는 두팔로 힘있게싸여밀며

『이모님 차라리나를죽여주세요 나는나는 살고잇습수는업습니다』
하며 땅에쓰러져올다가

『죽을때까지 어린것호신이의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싶다 호신아……』
그러는새각에 호신을를 그려보고 신애는한울을치여다보면서 지금곳혀를때물나고하얏다

이것을본이모는 겁이나서

『애 사람을살녀라 무엇을하니』

하며 신애를붓드려 나르키면서

『애 죽으라거든 저량반집으로가서죽어라 돈천원이 비행기를타고을나간다』

하더니 중국인신사의 압력으로 가서

「뭐이러케 체면을보실것이 아니오니 어서다려가십시오」

하며 다시 우는 신애를 그의게로 넘기었다 그는 통변을 식히여 문밖에서 기다리는 자동차에 신애를 드러다 안치고 썰나가랴한다

「아—스………」

신애는 비명을 외치면서 몸부림을 쳤다

「홍암만 몸부림을 쳐도 돈을 주었스니 사 소용업서 왕장패 어서당신먼저 타십시오요 나는 나중에 탈터이니」

「호호」

왕장패라고 부르는 신사는 먼저 자동차에 타고 통변은 신애와 가치 서로싸호면서 운전수의 계명하야 자동차를 타랴하얏다 마침 이때에

「잠깐 기다리십시오요 네 기다리십시오」

질풍과가치달려오는 인력거위에서 이러케 부르는 사람은 부호의 딸애자이였다

차부는 그말에따라 인력거를 돌코 지나가는 자동차의 압페선뜻나스며

「정거해요」

「야아 막지말어」

차속에서 통역이 운전수의등을치며

「막어도 주저말고 지나가자」

운전수는 주저말나는 통역의말대로 나아간다

「망할자식」

하며 차부는 운전대에 뛰여올라 운전수의 손을 싹뺏들었다 그리는 동안에 자동차는 십여간을 나아갔다

「왜이래」

운전수는 내려났다

그리자 차부는 「한들」을 확들어 바렷슴으로 자동차는 움직일수 없게되였다 그것

을 본 통역은 별안간 차부의 가슴을잡더니

「야아 너는 왜 폭행을하느냐」

차부도 통역과 지지안코

「기대리라는데 왜 자동차를 운전시키느냐 말이다 압페잇는 내가 보이지안트냐」

「내라니 차부녀석이 건방지구나 이리와」

「가자 어데던지가자」

그러는 동안에 애자가 뛰여와서

「신애씨 어서내려오세요」

「차안에서 애자를본 신애는 반갑게놀나며

「앗앗씨!」

신애는 차밖으로 뛰여내릴나고 몸부림을친다

왕장패는 극력으로 신애를 못내려가도록 말린다 애자는 급피자동차에 뛰어들나
신애의 원팔을 당기며

「이사람은 남의 안해요 외인이 데려갈녀자는 아니요」

왕장패는 눈알을 굴리며

「그런말은 마시요 이녀자는 내가 천원에 샀소」

「지나에서는 노예로 매매하지마는 조선에서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이 말에는 왕장패도 할 말을 못하고

「천원 내지잇소」

「천원 내었다는 증서가 잇겠지요」

「유잇습니다」

「봅시다 천원의 돈은 내지요」

왕가는 좃치안은 상으로 증서를 내노했다 애자는 그 증서를 보고 허리춤에서 천원
뭉치를 꺼내여 주며

「자아 바드시오 이증서는 내가 가져가겟소」
애자는 증서를 허리춤에 단々이 넣코

「부인 인제는 관제 찬습니다 나하고 갖치가 십시다」

「앗씨 무엇이 라고 하엿스면 조출난지요」

그러는 동안에 차부는 등변을 내여 던지며

「무엇이건 방지단말이야」

하다가 애자를 보고 경트로와서

「엇더케 잘되엿습닛가」

「아 참고맙습니다 얼마나 착을넬가요」

「차비 말입닛가 약속한대로 내십시요」

「그것은 덩거장에서 여기까지의 임금이 아님닛까 자동차를 정거시켜주신것
은엇더케 할가요」

「그런것은 고맙습지요」

「그래서야 될수잇나요」

그리자 차부는 품에서 무엇을 차지면서

「앗 지금 싸우는등에 썰러트리엿구나」

「무엇입니까」

「아 아님니다 쓰지도 못할만한 책입니다」

「책?」

애자가 돌아다보자 마침뒤에 금글자로 써여잇는 독일문의 법률서가 썰러져잇는것
을집어 차부를 주며

「이것입니까?」

「아 이것입니다 참고맙습니다」

차부가 그 책을바다 급피 품에 넣는것을 애자는 정신없이 보고섯었다 그러는 동안
에 신애가 차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당신은 오라버니가 아니십니까』
차부가 그제야 신애를 자세히 보더니

『앗! 신애가 아닌가』

『아! 오라버니』

『신애야!』

그차부는 신애의 옴바 복상이었다 신애는 옴바에게 달려들어 운다 복상이 도 눈을
깜짝거리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못하였다 참으로 분하다』

신애는 늑겨올다가 다시 얼굴을 들고

『어머니는 병으로 도라가시겠습니까』

복상이는 삼작놀라며

『어머니 사지.....』

신애는 옴바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며 겨우 말하였다 복상이는 이를 팔며 한참
울다가 눈물을 씻는 것을 본 신애는 옴바더러

『위급한 곳을 저앗씨가 구하야 주시겠습니까』

복상이는 애자에게 고마웁다는 인사를 하며

『저누의가 여러가지로 신세를 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신애의 오래비입니다』

『아이 신애씨의 오라버님이십니까』

애자도 간곡한 인사를 하며

『아! 참으로 의외입니다 부인 참 훌륭한 오라버니를 두셨습니까 그러』

그리고 복상이를 보면서

『아지 못함으로 차부라고 해서 참으로 실례하였습니다 부인하여 잔나의 집으로
로 가지지요 아시다시피 아무도 업쓰니깐요』

『그러면 오라버니가 갓습니다』

『그래요 자아 대단히 미안합니다』

복상이는 벤차를 끌고 고도의 뒤를 따라 갔다 두시간이나 지난후 별장으로 왔다

『그런데 부인』

애자가 신애를 보면서

『오라버니더러 인력거 갓흔 것을 끌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시도록 좀 원하시는 것
이 있더하십니까』

복상이가 레를 하면서 애자더러

『천절하옵심은 너무나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찾기 위하여 차부도
뜻을 하고 있는 것이 나 홀로 노입니다』

애자는 마음으로 동정하며

『곳 아버님의 원수를 차졌스면 좇겠습니다』

※

※

※

복상이 아버지만수는 그동안 진범인이 체포되어 취도박는 바람에 무죄가 될가

유죄가 될가 감옥에서 유예되어잇스나 집안소식은 전혀 모르고 외로히 눈물노그
날 / 을 보내고 잇섯다

어느날 간수가 만수를 보더니 전범인이라든 그범인은 다른범인인데 덕수가 살
해당하든 그날밤에 수원에서는 두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섯다는 말을하며
『너는 명일이면 사형집행한다더라』는 말을듯자 갖득이나 괴로움과 분함을 견
대지 못하든 만수는 귀가 맥키여서 쌍에 주저안졌다 정신이야 득하야 지고 눈에 보
이는 것이 업서지며 별안간에 감옥이 캄캄하야 지고 전신을 칼노여이는듯 살점
이 썰나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에 간수장과 중이 드려오더니 만수에게 훈계를 하고 유언을 물었
다 그러나 정신은 만수는 입이 썰니여서 아무런 말도 할수 업섯다 간수장은』
『천오호죄수! 너는 명조다섯시에 처형한다!』

만수에게는 그런 말도 들리지 안코 귀가 멍멍하야지며 서서잇는지 앉저잇는지
도 모르고 마루바닥이 도는듯하였다

때맞치 감옥밖갓해서는 퇴성이 들리며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더니 감옥
속으로 찬바람이 드려오기 시작하는 음산한 날이 었다

어느날밤에 복상이가 인천서주안까지 불날이잇서서 갖다오고잇섯다 밤도임이
열한시가 지났는데 주안송림사이로 오자 별안간 복룡이나서 한거름도 거를수 업
슴으로 할일 업시 나무뿌리에 걸어안저서 배를 누르고잇섯다 그러자 어디서인
지 사람의 말소리가 들녀옴으로 자세히 본즉 자괴안전곳에서 멀리안은 소나무 및

테서 나는 소리가 었다 화물렬차가 지나가고나니 그들의 말소리는 자세히 들니
었다

『야! 천원 잘뵈더라』

『이돈은 피나는 돈이로구나』

『피나는 돈이 아니라 피난돈이겠지』

『야아 이것은 말이다 지금 제집의 족하년판돈이야 그제집이 도적마진줄 알고
단련할때까지는 골압푼닐이야』

『야아 약한소리 말아 너 갓흔사람도 그런소리를 해』

『하하하하 그러나 너도 그만한일을 하고도 오늘날 지랄로 안된것은 너 갓치 힘
한팔자도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후일때문에 한장 써주어야지!』

『무어라고 쓸가』

『일금천원정々령수하고우는 귀전이 수원에서』

『아! 가만잇서 쓰기는 쉬우나 이어두운곳에는 벼루도 업고 붓도 업스니 었저나』

『그러길내 미리 써가지고왔네』

『무엇이라고 썼나』

『그러면 보아보지』
복상은 배압푼것도 나저버리고 꺾레숨어서듯고잇섯다

『우는 수원에서 살인한 사실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또 이후는 살인

사실을 빙자하고 금전강청은 결코 안기로 계약함 도장이나 찍게!’
하며 서명에 날인한후 증서를받을때에 복상이는 별안간 툴툴떠어나오며

『됐다 이놈들아』

부르짖는 소리에 둘은 삼작놀나 다라났다

『이놈들 인제는 잡었다』

복상이는 나는 새와 갖치 쫓쳐갔다 다라나는 두놈은 죽자사자 다라남으로 할일업
시 늦쳐바리였다

『아앗 분하다』

복상이는 쌍에 몸을 던져 확확 울었다 그러나 잊지할수도 업섯슴으로 도로소나무
사이로와서 혹시 무슨 증거품이나 업는가하고 사면으로 차저볼때에 백지가 바람
에 날리고잇는것을 집었다 성냥불을 켜보니 일금천원 정정령수라는 계약증서
이엿슴으로 복상이는 괴막히게 반가워서 쌍에 업드려 두손을 합하며

『아— 아버지 안심하십시오 인제야 확실한 증거가 손에 드러왔습시다 아버지
은 청련백일의 몸이 되실것임니다』

복상이는 하도 반갑고 기쁨으로 뛰다가 그 동안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니었다

※

※

※

백호는 그동안 첫엄서먹지 못하고 울고만잇는 어린것의게 부대껴 지나다가 어
저저녁부터 그어린애는 원일인지 몸이 불갓치 썰코 봇채기만하니 백호는 하도
괴가 막혀

『애아가 어머니의젓이먹고심흐나 왜이리 봇채느냐』
하며 걱정을 하얏다

그어린애는 병이 드려 목이 터지도록 울기만하며 손발이 말너서가 느러지고 넷
날의복실— 하든때와는 판관이되어 참아볼수가 업섯다

『아— 이일을엇저면조홀싸? 나 혼자엇더케하면조란말이나』

하며 한숨을쉬일때에 그의어머니가 아들이 돈말한것을 냉정하게 돌려보낸것이
마음에안되어서 지금돈을가지고 아들을차저왔다

백호는 어머니를 쫓밧게보고놀라며 니러서서 반가웁게마지며

『아— 어머니 엿더케오섯슴닛가』 하니

『너의사는것이궁금해서 보러왔다』

하며 어린애의우는소리를듯다가 다시그의수족을 더듬어만져보더니 고개를흔
들며

『홍 혼인을젓따위로해가지고 자식도저모양이되엿구나』

『아—글세 어머니 이일을엇저면 조겻슴닛가』

『하도어이업다 내가엇썰수잇나』

『네 그런데.....』

『나는 볼수도업스니가갓다 그노릇을엇더케보고잇단말이나』

백호는 어머니의 하는 말에 놀라며
『네? 어린것이나 살녀야지요』

『내가 엿더케 살닌단말이나』

하며 아들의게 돈도 주지안코 그대로 모르는데 하더니 그의 어머니는 화를내며
밧그로나갓다 백호는 정신을닐코 우는아희를바라고만 잇슬뿐이다 그리다가
방에굴드며 텅정만바라고누어서 두손으로머리만글스고잇는동안에 원일인지
그러케우든 어린아희의우름이뵈첫숨으로 백호는놀내여 혹사 죽지나안헛나하
는의심이나서 별씩이러나서보니 자기의안해가 어느틈에도라와서 아희를안고
잇섯다

『앗 신애』

『네』

『아—엿더케도라왔소 아—참 잘도왔소』

신애는 겨우한열흘동안에 볼수도업서 살이빠진아희를보고 젖을만지며 불상
한생각에 울고잇다가 다시떨리는목소리로

『저—별장집애자씨가 나의몸을구해주섯습니다』

하며 말을스치라할때에

『선생님』

하고 방문을열며 드러오는사람은 애자이였다 백호는 반가워나려나며

『아—애자씨—신애를구하야주신례를 무엇이라고할는지요』

『아니 제가 아니라 선생님의부인을 구해주신어른은 부인의오라버니입니다』

『응 신애의오라버니? 아—니 언제오라버니가잇섯나』

『네 선생님도 그것도모르시고 게심닛가 부인의오라버니는 고학을 하신답

니다』

『형이 고학?』

『네 아버님의원수를 찾기위하야 그어른은 참모든고생을참고잇는 의의가견
고한 훌륭한이예요』

『아버지의원수?』

『아—니그러면 선생님은 당초에모르심닛가』

『네—나는 당초에모름니다』

『왜작년에수원서 살인사건이 니려나지안헛서요』

『네네 그것은나의집이지요』

『네?』

엿헤잇든애자도삼썩놀내였다 백호는 살인나든당시를생각하며

『살해당하든사람은 나의아버지와누의임니다』

「아이……」

애자도 놀랐다

「그러면 선생님 그때의 범인을 아십니까」

「네 알고 말고요 잊겠습니까 동진호만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 부인의 아버님이십니까」

「앗!」

신애는 급히 애자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얏스나 임이때는 느꼈었다 백호는 다 시놀래며

「아니 그러면 신애가 만수라는 살인죄인의 딸?」

「그것은 억울한 말입니다」

백호는 눈을 홑뜨고 절망된 어도로

「무고하면 다행이겠지 마는 아마 무고치는 안할걸요 피해자의 아들이 된 내가 해자의 딸과 살수잇습니까……아……참 판단할수 없다」

때마침 뱃게나갓던 백호어머니가 다녀드러와서 열방에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세히 귀담어듯다가 별안간에 방문을 열며 들어왔다

「앗 어머니」

백호도 신애가 자기의 아버지와 누이를 죽인 원수의 딸인 줄을 의외에 알았스나 그러

나 신애는 지금 아들싸지 나 혼안해임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놀라며

「어머니 엿저면 조흔싸요」

「뭐야 너 이들이 지금 하든 말을 나도 다 드렸다 애이놈아 계집이동이 났더냐 애

비의 원수와 살다니……응 그리고 자식싸지 났타니 그래가지고도 남의 선생

노릇을 하느냐」

백호의 어머니는 이와갓치 말을 하며 무서운 눈으로 아들을 치여다 보았다 백호는 고개를 숙이며

「아! 참으로 몰랐습니다」

「물나 그런 말이 어데잇답 장가들면서 안해될 사람의 근본도 모른다니 온! 될 말이냐 너는 밤낮 사랑하는 사람세리 뜻만 마지면 그만이라고 했지 애비의 원수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대관절 원수의 몸에서 난 자식은 엿더케 할터이냐」

신애는 듯다 못하야

「이아히는 제아들입니다 백호씨의 어머니님이심닛까」

하니 백호의 어머니는 신애를 돌녀다보면서

「응네가 나의 남편과 설을 죽인 만수놈의 딸이로구나」

신애도 말을 니여서

「당신이 나의 아버님을 무고하게 죄인을 만드려주었지요 나의게는 당신이 원

수을시다』

『온! 저것보아 도적이큰소리한다드니 참잘도찌드는구나』
신애는 어린것을방바닥에 내려노흐며

『원수의시어머니는 나는밤들지못하겠습시다 또저어린것 아니원수의손자는
아들노아니알겠습시다』

하며 일어나서 나가랴할때에 별안간 누어잇는어린것이 악써우는것을보니 참
아발이찌러지지아니함으로 다시어린것을안고 후々늑기며울었다
이때에밖에서 우렁찬말소리로

『신애야 녀려마라』

하며 방문을여니 그사람은 신애의오라버니이엿섰다 신애는 정신을 닐코올다
가 놀나며

『아! 오라버니 엿저면조출싸요.....』

『좀기다려다오 곳다! 알수잇스니』

하며 뒤를도라다볼때에 문뒤에섰든 형사두사람이

『복상씨 저괴그놈이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니 복상이는 고개짓을하며 신애의것헤숨었다 이때에복상이는 증서를 경찰
서에보이고 형사와가치 박춘만을찾다가 그의내외가 신애집으로오는것을보

고 다시그들의거동을 더욱조사하라고 순사와형사를다리고 복상이는먼저신애
의집에와서 잇다가 자괴의누의동생의 귀막힌처디를듯고 이와같은말을하얏섯
다 때마침 신애의 이모내외가 들어오면서

『주인게심닛가』

하며 방으로드러와서 신애의압호로오더니

『흥 너는또어느사이에 이리왔니 어서나하고가자안가면 강도살인 웨너도알
지그런소리가듯기실커든 나하고가자.....응』

신애는 붓들닌손을 뿌리치며

『아! 이모님 인제는단념했습니다 강도의쌀이고 사형수의쌀이고 아모래도
조와요』

하며 엮드려서운다 이때에 이모의남편 박춘만이드한목세며

『가자.....응 너의아버지가사형수라도 괜찬타니 원! 말이되나』

『야! 이놈아 그사형수라는것은 너다』

하며 복상이는 뛰어나와 춘만의의손목을붓들며

『엇저녀에 주안소나무숲속에서 천원을주며 살인이탈로 될싸보아서 미리방
지코자하든 박춘만이란놈이 네가아니나』

『엇또차오던놈이 그러면너로구나』

복상이는 선뜻증서를 보내여 그의 눈에 보이니 춘만이는 잠자 놀나며 복상이의 게로 덤벼드려 증서를 빼앗으려 할 때에 복상이는 무서운 목소리로

『야! 이따려 죽일놈아 너 때문에 나의 늙은 아버지가 죄업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다 사형을 바드실 지경이요 내가 너를 찾고자 죽을 고생을 다하는 동안에 나의 누의까지 흉악한 너의 폐집의게 팔녀 같 번사지한 대천지 원수놈이다 이놈! 죽일놈!』

하며 분한 가운데 다시 말을 하여

『이놈아 나는 그동안 천신만고를 겪다가 주안소나무 숲속에서 한올이 돌보아 었게 된 증서를 그리쉬웁게 빼앗길 줄 아느냐』

하며 둘이 가치 싸울 때에 문 뒤에 숨 었든 형사 두 명과 쓸 압 나무 뒤에 섰든 정복순사 네 명이 달려와서 신애이 모의 남편인 살인강도를 포박 하얏다 복상이는 포박된 춘만을 치여다 보며

『이놈아 한올이 무심치 안타 악한놈은 악하게 죽을 것이다 도적이 제 말이 저리고 살인강도한 사실을 아는놈의게 소문이 날가 보아서 나의 누의 동생 판돈 천원을 남모르게 그 도적놈을 주고 입을 트려 막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으서서 그곳에서 너 이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살인강도인 것을 알게 되얏다 이놈아 불빛은 어두운 곳에서 밝혀진다 불빛가튼 법은 어두운 너가튼놈을 밝혀주고야 만다

살인자는 사하고야 만다 이놈 너가튼놈은 따려 죽여도 싸다 너를 잡으려고 피와 땀을 흘렸다 이놈아 법을 바더라』

복상이는 다시 백호의 어머니를 보면서

『여보십시오 엇덧승닛가 나의 아버지를 살인수로 만드려 노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지요』

하니 그는 머리에서 귀개를 빼더니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율은 귀를 찌르며

『내가 잘못듯고 잘못아 려스니 용서 하시오 아모쪼록 신애를 백호의 안해로 삼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본시 보이지 안치마는 귀는 이러케 되면 안 들립니다 다 손자가 잇스나 말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얼골도 볼수 업는 나를 병신으로 알고 용서 하십시오 네 복상씨 신애야 용서해다오』

그리하여 살인강도 박춘만이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모진 형벌을 바드며 자기가 덕수의 돈 가져오는 것을 알고 덕수 집에 몰내 드러가서 뒤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엿다가 밤이 이슥해지고 집안 사람이 자는 틈을 타서 돈을 빼앗고 자살해 하엿다는 사실을 일러 자백 하얏스며 복상이 아버지는 청천백일의 몸이 되여 나오게 되엿다 백호와 신애는 어린것을 다리고 지나간 일을 모다 니저바리고 우슴에 싸히여 새로히 살게 되엿다

그러는 사이에 어나듯 복상이는 별장집살 애자의 동정으로 경도대학 법과(京都大

學法科)를맞친후 변호사가되여서 지금은애자와결혼까지하고 늙은아버지를모
시고 행복의날을보내엿스며 다만죽은어머니를 자기생전에 받들지못하게된것
이한가지의유감이엿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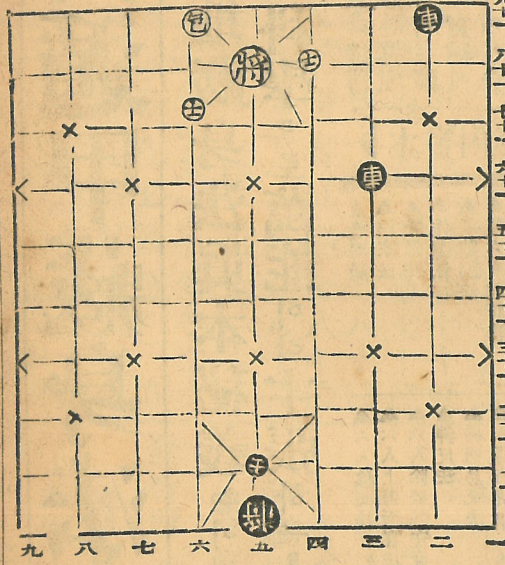
人情悲劇小說 불상한남매 중

解釋博譜大學 付學習用將棋一件 及用馬道番號表

▲三國時節에는諸葛亮의天下이요!!
▲將棋時節에는博譜大學이大王이다!!

博譜에 神出的謀術이있고 謀術에鬼沒의必勝이있다니 自來로將棋에趣味가있는人士 亂勢를一笑로轉換할수있는博譜를잇지一時인들은손에노후수잇스라 內容解釋이完備充實한博譜의要求가緊切한絶好期 此書出刊이偶然치안코著者備選에 大衆으로 愛用的娛樂物인將棋에 可考한한優良한博譜업술을 恒常遺憾으로 녀여多年間苦心研究의結晶으로 今日에完全한此書를 出刊함에當하여愛博家諸氏와 아울러歡喜의樂을보려하오며 空前無比인方式으로詳細하고도明確한解釋法에는重疊한疑雲이一掃되기에 最大意外의狂喜稱讚을不免하리라

(介紹容內書本)



▲美裝全一冊
▲定價金七十錢
▲勝紅 解法 釋法 平法 是法 先紅 敗先紅
六拾參車六六 拾五車將七 拾六士六拾 五車馬(來 時)에는本書 中の九轉還丹 解釋法第參節 到ふりしや 參照篇五頁 參照 車六拾五五 車將時七拾 六士六拾五 六士六拾五 (不來)하고八 拾五將時八 拾六으로갈때 (去時)에는本 書中九轉還 丹解釋法第參 拾節을보시압 (解釋篇十二 頁參照)

無師奇門遁甲藏身法

美裝全一冊
定價金二圓三十錢

▲心理作用的縮地藏身法真本秘義는이에나왔다!!!
▲勿驚하라在來의科學으로萬能이라主張하는人士여!!!

人心作用의微妙한原理를否認할수잇스라淺薄無雙하在來의科學은이心靈現狀의奧妙한眞理不可犯의原理를否認하엿다만은今日에는催眠學이實驗되고透視千里眼念寫等研究實驗에大學教授들이敎鞭도던지고熱中하는이예인들은누구나다아는바이니우리는그들과是外非를다를必要는업다우리는다만우리에게도발서前부터精神科學의文明과諸現狀이남보다뛰어나게압서서

栗谷、土亭、徐敬德、許眉叟、等諸賢이斯界造詣가깊혔을을자랑할뿐이며다만그眞本秘法을어기엇더을만恨이러니幸히李載規先生의秘藏이엇던그의眞本을出版하게되니斯學研究家에對하야는實上難再得의奇書이다

本書內容介紹

- | | | |
|-----------|-----------|-----------|
| ▲返閉局 | ▲六人移文法 | ▲使獨甲鬼法 |
| ▲作家法 | ▲六人上書天官法 | ▲箱丁法 |
| ▲守殺法 | ▲六人除盜賊守身法 | ▲量水遊魂法 |
| ▲作辭法 | ▲神尺法 | ▲附秘傳陽宅立門法 |
| ▲八陣圖法 | ▲神明易爻法 | ▲陽宅凶脉 |
| ▲使六人神將法 | ▲雷霆白虎消言法 | ▲犯境法 |
| ▲六人奇遁法 | ▲天地大神借力法 | ▲以姓看門 |
| ▲六人東遁法 | ▲三彌借文法 | ▲五音姓法 |
| ▲六人書庫運錢法 | ▲九天玄女耳報法 | ▲北斗七星法 |
| ▲六人男女奴女婢法 | ▲三奇玄女耳報法 | ▲陽宅定局圖 |
| ▲六人書禽獸使役法 | ▲取食法 | ▲二十四門吉凶論 |
| ▲六人變身法 | ▲知止法 | ▲浮金圖 |
| ▲六人遊魂法 | ▲驅牛神借力法 | ▲逐年吉凶坐法 |
| ▲六人呼風喚雨法 | ▲馬神借力法 | ▲十二月將吉凶論 |
| ▲六人退却山川法 | ▲三妙法 | ▲河圖生死門吉凶法 |
| ▲六人縮地法 | ▲五童子使法 | ▲井水方法 |
| ▲六人渡海越嶺法 | ▲童子使法 | ▲關白擇日 |
| ▲六人男女相應法 | | ▲萬獸相食 |

- | | | | | | | | | | | | | |
|-------------|--------------|---------------|--------------|----------------|----------------|---------------|---------------|----------------|----------------|----------------|----------------|---------------|
| ▲新式流行尺牘金五十錢 | ▲新式第一唱歌集金六十錢 | ▲義祖大王從巡記金三十五錢 | ▲義盜一枝梅實記金二十錢 | ▲新小說 寂寞江山金二十五錢 | ▲新小說 絕世美人金三十五錢 | ▲新小說 七倒八起金二十錢 | ▲新小說 大丈夫金二十五錢 | ▲新小說 山中處女金二十五錢 | ▲新小說 有情無情金二十五錢 | ▲新小說 二八青春金二十五錢 | ▲新小說 四時長春金二十五錢 | ▲新小說 二十春光金二十錢 |
|-------------|--------------|---------------|--------------|----------------|----------------|---------------|---------------|----------------|----------------|----------------|----------------|---------------|

- | | | | | | | | | | | | | | | | | |
|-----------|-----------|-----------|-----------|-----------|------------|----------|----------|-----------|------------|-----------|-------------|------------|--------------|-------------|-------------|---------------|
| ▲千里春色金二十錢 | ▲青山綠水金二十錢 | ▲天定佳緣金二十錢 | ▲十生九死金二十錢 | ▲우승거리金十五錢 | ▲死나生이나金七十錢 | ▲血淚夢金七十錢 | ▲夜光珠金八十錢 | ▲青春紅顏金八十錢 | ▲설음의사정金八十錢 | ▲一枝花金三十五錢 | ▲사랑의꽃동산金七十錢 | ▲現代學生必讀金一圓 | ▲現代思想各論金四十五錢 | ▲現代名句選集金九十錢 | ▲現代黃金生活金八十錢 | ▲偉人成功의經路金四十五錢 |
|-----------|-----------|-----------|-----------|-----------|------------|----------|----------|-----------|------------|-----------|-------------|------------|--------------|-------------|-------------|---------------|

불상한남매

▲定價三十五錢

昭和五年十二月十五日 印刷
昭和五年十二月二十日 發行

著作兼 發行人 姜 殷 馨

印刷人 朴 翰 柱

印刷所 東亞印刷所

京城府笠井町壹九番地

發行所 大成書林

振興口座京城一三三二八番

▲版權所有

▲不許複製

◀錄目籍書要重及行發林書成大▶

振替京城一二二三八
京城附笠井町一一九

大成書林

[illegible]